

# 띄어쓰기의 원리와 현실

양명희\*

## 1. 머리말

국어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1988)의 5장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된다. 그러나 모두 10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띄어쓰기 규정으로는 국어의 띄어쓰기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띄어쓰기는 사전을 참고한다고 해도 온전하게 하기가 쉽지 않다. 국어사전 스스로가 띄어쓰기에서 완벽성을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띄어쓰기는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작한 것인데 요즘의 상황은 오히려 띄어쓰기에 자신이 없어 글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글은 국어 띄어쓰기에서 문제가 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그 원리를 설명하고 띄어쓰기를 정할 때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띄어쓰기는 모두가 쉽게 익혀 쓸 수 있는 '쉬운 띄어쓰기'로 나가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을 펴기 위한 것이다.

## 2. 띄어쓰기 방식과 띄어쓰기

종래의 띄어쓰기 방식은 크게 넷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첫째는 분석형 띄어

---

\*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쓰기로서, 단어나 형태소까지 띄어 쓰는 방식으로 조사, 어미, 접사까지 최대한 띄어 쓴다. 이 방식은 너무 많이 띄어 쓰게 되어 오히려 독서에 방해가 되며 지면도 많이 차지하게 되어 활용 가치가 적다. 둘째는 어절형 띄어 쓰기로서, 조사와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나 의존 형식인 의존 명사와 보조 동사는 띄어 쓰는 방식이다. 현행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 이 체계를 따르고 있다. 셋째는 절충형 띄어쓰기로서, 단어별로 띄어 쓰되 어절형 띄어쓰기처럼 조사나 어미는 앞말에 붙여 쓰고, 자립 형식의 단위로 띄어 의존 형식인 의존 명사와 보조 동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북한 맞춤법의 띄어쓰기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고 우리도 이를 부분적으로 따르고 있다. 넷째는 구절형 띄어쓰기 방식으로, 통사적으로 구절이 끊어지는 곳에서 띄어 쓰기를 한다. 이 방식은 띄어 쓰는 곳이 많지 않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절을 나누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상위 구절과 하위 구절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지나치게 붙여 쓰게 되므로 실제 활용하기가 어렵다.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절충형 띄어쓰기에 따르는 북한의 조선말 규범은 자립 형식의 단위로 띄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자립적이지 않은 의존 명사(북한에서는 ‘불완전 명사’라는 용어를 쓴다)는 모두 앞말에 붙여 쓰고 보조 동사(북한에서는 ‘보조적 동사’라고 한다)도 앞의 본동사에 붙여 쓴다. 이러한 띄어쓰기는 남한의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인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어기는 것으로 남북의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갈림길이 되었다.<sup>2)</sup> 국어사전은 단어를 모두 표제어로 등재하여 띄어쓰기의 지침서 구실을 하는데, 의존 명사와 보조 동사는 단어로서 사전의 표제어로 모두 등재되어 있다.

### (1) 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것이 많다.

1) 띄어쓰기 방식에 대한 논의로는 김민수(1973 : 210)와 민현식(1999 : 166~167)이 있다. 김민수(1973 : 210)는 띄는 단위에 따라 분석식, 어형식, 구문식, 구절식으로 나누었고, 민현식(1999 : 166~167)은 분석형, 어절형, 구형, 절형 띄어쓰기의 네 유형으로 분류를 하였다.

2)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국어의 띄어쓰기는 조사의 띄어쓰기이다. 조사는 어미와 달리 국어 문법에서 단어로 인정하지만 앞말과 붙여 쓰도록 하였다 (한글 맞춤법 41항).

- 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것이 많다.  
 (2) 가. 사과가 썩어 버렸다.  
 나. 사과가 썩어버렸다.

(1)과 (2)는 심병호(1996)에서 가져온 예이다. 심병호(1996)에서는 의존 명사를 붙여 쓰는 것에 대하여 ‘의존 명사는 그 비자립성과 뜻의 추상화의 정도에서뿐만 아니라 단어의 길이에서도 딴 품사의 단어에 비하여 짧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앞 단어에 붙여 쓰려고 하며 또 발음할 때에도 앞 단어와 이어서 발음한다’고 설명하고 이런 이유로 의존 명사를 앞 단어에 붙이는 것은 어휘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도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가 뒤이어 말한 것처럼 이는 띄어쓰기의 가장 큰 원칙인 ‘각 단어는 띄어 쓴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일견 의존 명사를 앞말에 붙이는 것이 더 쉬운 띄어쓰기법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의존 명사와 자립 명사를 구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것’은 의존 명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만 ‘놈, 거리, 편, 쪽’ 등이 자립 명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일일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에서는 의존 명사와 마찬가지로 단위명사 역시 붙여 쓰는데 이에 대해서 심병호(1996 : 52)에서는 ‘사과 열 개’는 띄어 쓰고 ‘10개’는 붙여 쓰는 것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잡성만 줄 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2)의 (가)와 (나)는 의미에서 차이가 난다. (2가)는 ‘썩어서 버렸다’는 의미이고 (2나)는 ‘사과가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2가)와 다른 (2나)는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 북한 띄어쓰기의 논리이다. 즉 본용언으로 쓰인 경우는 띄어 쓰지만 보조 용언의 경우는 어느 경우나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의존 명사를 앞말과 띄어 쓴다는 띄어쓰기 원칙은 대명사로 분류되는 ‘이 것/그것/저것, 이분/그분/저분, 이편/그편/저편, 이쪽/그쪽/저쪽’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단어들은 지시 관형사와 의존 명사가 결합한 대명사로 이미 한 단어가 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또 ‘새것, 현것, 갯것, 탈것’처럼 관형사와

---

3) 지시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한 ‘이때/그때/접때, 이곳/그곳/저곳’은 최근까지 띄어 썼으나 ‘접때’의 예처럼 이를 단어는 음운론적으로 한 단어로 결합하였고 그 뜻도

의존 명사가 결합하여 복합어가 된 경우도 띄어 써서는 안 된다. 보조 동사도 한글 맞춤법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본동사와 보조 동사가 결합하여 합성 동사<sup>4)</sup>로 쓰이는 경우는 항상 붙여 써야 한다.

### 3. 합성어와 띄어쓰기

형태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합성어와 구의 판단이다. 합성어와 구의 판단이 어렵다는 것은 띄어쓰기의 판단도 어렵다는 것인데 합성어로 판단되면 그 단어는 붙여 써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어사전들이 표제어 등재가 일관적이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합성어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합성어 중에도 통사적 합성어가 구와 그 구성 방식이 같아서 그 경계를 긋기가 쉽지 않다.

합성어와 구의 판별 기준으로는 한 단어의 내부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는 단어의 판별 기준이 가장 유용한데, 흔히 합성어의 판단 기준으로는 이러한 문법론적 기준 외에도 의미론적 기준, 화용론적 기준, 음운론적 기준을 듣는다.<sup>5)</sup> 그러면 이 기준으로 'N1+N2' 구성과 'V1+V2' 구성의 합성어 여부를 판별해 보도록 하자.

#### 3.1. 'N1+N2' 구성의 합성 명사

- (3) 가. 과일나무, 감나무, 사과나무, 커피나무  
    나. 라일락 나무
- (4) 가. 장미꽃, 개나리꽃  
    나. 강낭콩 꽃, 가지 꽃, 라일락 꽃, 해바라기 꽃

---

지시관형사 '이, 그, 저'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붙여 쓰고 한 단어로 올렸다.

- 4) 학교문법에서는 단어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고, 다시 복합어를 합성어와 파생 어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 따라 용어를 사용하였다.
- 5) 일반적인 합성어 판별 기준이다. 서정수(1991)에서는 구문론적 기준, 의미적 기준, 보조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 (5) 가. 나뭇잎, 호박잎, 싸리 잎, 봉선화 잎, 상추 잎  
나. 범씨, 홍화씨, 호박씨, 오이씨, 사과 씨, 해바라기 씨, 코스모스 씨, 잔디 씨
- (6) 가. 우유병, 유리병, 요구르트 병, 플라스틱 병  
나. 성냥갑, 우유 갑, 화장품 갑
- (7) 가. 웃값, 책값, 갯값, 밤값, 떡값, 술값, 꽃값, 집값  
나. 과일 값, 음식 값, 점심 값, 택시 값, 버스 값, 비행기 값, 전세 값, 자리 값
- (8) 가. 소설책, 만화책  
나. 노래 책, 익힘 책, 음악 책, 미술 책
- (9) 가. 등굣길, 하굣길, 출근길, 퇴근길, 여행길  
나. 휴가 길
- (10) 가. 방정식, 셈식, 곱셈 식, 뺄셈 식  
나. 차림표, 배열 표

합성 명사와 명사구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은 국어사전마다 합성이 판별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3)~(10)은 주로 학교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띄어쓰기가 차이나는 예를 중심으로 뽑은 것이다.<sup>6)</sup> (3가)의 ‘과일나무’는 유실수(有實樹)라는 의미이므로 합성이이고, ‘감나무, 사과나무’는 우리말로 된 품종명으로 붙여 쓰도록 규정되어 있다.<sup>7)</sup> 그러나 우리말로 된 품종명이라고 해서 ‘나무’를 붙인다기보다는 ‘과일, 감, 사과’만으로는 ‘과일나무, 감나무, 사과나무’를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붙여 쓴다고 설명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3나)의 ‘라일락 나무’는 ‘라일락’만으로도 ‘라일락 나무’를 가리키므로 굳이 ‘라일락 나무’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커피나무’는 우리말로 된 품종명이 아니기는 하지만 ‘커피’만으로 ‘커피나무’를 가리킬 수 없기 때문에 식물명으로 사전에 올리고 이에 따라 붙여 써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기준으로 어떤 나무는 붙이고 어떤 나무는 띄어 쓰는 것이 어색하기도 하고 쉽지도 않다.

(4가)는 합성이로 사전에 올라 있는 단어인데 ‘장미꽃’은 ‘장미의 꽃’으로 풀이되어 있고 ‘개나리꽃’은 식물 전문어로 풀이되어 있다. (4나)의 ‘강낭콩 꽃’과 ‘라일락 꽃’은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데 ‘장미꽃’의 사전 풀이를

6) 임동훈(1999), 양명희(2000가), 양명희(2000나) 참조.

7) 『표준국어대사전』의 띄어쓰기 지침(1999) 참조.

보면 ‘강낭콩 꽃’이나 ‘라일락 꽃’도 붙여 써도 무방할 듯하다. 그러나 ‘강낭콩꽃, 라일락꽃’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는 띄어 쓸 수밖에 없다.<sup>8)</sup> (3가)의 ‘나무’ 합성어와 비교해 보면 ‘라일락’이나 ‘장미’, ‘개나리’는 꽃이 따라 붙지 않아도 꽃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꽃을 붙여 쓸 필요가 없으므로 띄어 써야 하겠지만, ‘강낭콩 꽃’이나 ‘가지 꽃’은 ‘강낭콩, 가지’가 꽃 이름이 아니므로 오히려 ‘강낭콩꽃, 가지꽃’처럼 붙여 써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의미적 기준만을 가지고 합성어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현재 국어사전의 실제 모습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우리 국어사전은 합성어 판별을 국어학적인 기준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태도, 즉 일상적으로 많이 붙여 써서 하나의 단어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판별한 경우는 합성어로 보고 붙여 쓰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장미꽃, 개나리꽃’ 등이다.

(5가)의 ‘싸리 잎’, (5나)의 ‘사과 씨’도 ‘꽃’ 합성어와 유사하다. ‘나뭇잎’은 풀이는 ‘나무의 잎’이지만 음운론적 기준<sup>9)</sup>으로 보면 합성어임이 틀림없다. ‘볍씨’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싸리 잎, 사과 씨’는 ‘싸리의 잎, 사과의 씨’이므로 합성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싸리 잎, 사과 씨’처럼 띄어 써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띄어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호박씨, 오이씨’도 국어사전에 합성어로 올라 있는데 풀이는 ‘장미꽃’처럼 ‘오이의 씨’, ‘호박의 씨’로 되어 있다.

(6가)의 ‘요구르트 병’, (6나)의 ‘우유 갑’도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므

8) 『표준국어대사전』의 작업 지침(1999)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있다.

“꽃 이름은 붙인다고 했는데 그것은 표제어를 검토할 때의 원칙이지 이미 표제어가 확정된 상태에서는 표제어에 없는 꽃 이름은 띄어 써야 한다. 따라서 ‘할미꽃’은 표제어이니까 붙여 쓰고 ‘해바라기 꽃’은 표제어가 아니니까 띄어 쓰는 것이다.”

이 설명으로 보면 애초에 꽃 이름은 모두 붙이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다.

9) 응합 형태가 나타나거나(소나무, 부삽 등)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촛불, 잇몸, 횟수 등) 합성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다. 임홍빈(1981)은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통사적 파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면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한글 맞춤법에서도 직접적으로 명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잇소리는 합성 명사를 만들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간주하였음을 보여 준다(한글맞춤법 제30항).

로 ‘병’과 ‘갑’ 앞에서 모두 띄어 써야 하는 예이다. 그렇지만 ‘우유병, 유리병’이 사전에 올라 있는 것을 보면 요구르트를 담는 병인 ‘요구르트 병’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플라스틱 병’도 사전 표제어로 올리고 붙여 써야 한다. ‘우유 갑’과 ‘화장품 갑’도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성냥갑’이 올라 있는 것을 보면 새로 사전에 올려야 하는 합성어가 아닌가 싶다. ‘우유 갑’은 우유를 담는 갑으로 흔히 종이로 만들고 육면체와 비슷한 모양이다. 플라스틱 병에 우유를 담은 경우는 우유 갑이라고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유 갑’은 의미론적인 기준에도 합성어이다.

(7가)는 국어사전에 있는 합성어로 ‘깻값’이나 ‘꽃값, 떡값, 밥값’은 제3의 의미를 만들므로 합성어로 붙여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웃값’이나 ‘책값, 술값’은 명사구 구성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국어사전에 올라 있는 이유는 빈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점심 값’은 ‘점심’이 점심식사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명사구이며 ‘저녁 값, 간식 값’도 같은 구성이다.<sup>10)</sup> ‘떡값’은 ‘추석 휴가비나 놀물’의 의미가 아닐 때 즉 합성어적인 의미가 아닌 ‘떡을 사는 값, 떡의 값’의 의미일 때는 합성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sup>11)</sup> ‘택시 값, 버스 값, 비행기 값’은 ‘웃값’이나 ‘과일 값’과는 다른 구성이다. ‘N1을 사는 값’이 아니라 ‘N1을 타는 값’이다. 그런데 이때의 ‘N1+값’은 ‘회전목마 값, 바이킹 값, 코끼리 열차 값’처럼 임시적인 단어 형성에 자주 쓰이기 때문에 합성어보다는 명사구 구성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집값’은 합성어로 사전에 올라 있고 ‘전세값’은 ‘전세 값’으로 쓰도록 하고 있다.<sup>12)</sup> ‘집값’은 집을 팔고 사는 값으로 위의 ‘웃값, 술값’과 같은 구성이다. 역시 빈도를 고려한 표제어 등재의 예이다.

(8가)의 예처럼 문학 장르 중 ‘소설’만이 ‘소설책’처럼 ‘책’과 결합하여 합

10) ‘점심 값, 저녁 값, 간식 값’은 국어사전에 없지만 ‘술값’은 있다.

11) 그러나 국어사전에는 ‘N+N’의 의미로만 뜻풀이가 되어 있는 단어도 표제어로 많이 실려 있다. 위의 ‘장미꽃’이나 ‘웃값, 술값’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이런 현상은 문맥에 따라 즉, 뜻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태도 때문이다.

12) 『표준국어대사전』의 ‘집값’의 용례에 ‘전세값’은 ‘전세 값’으로 띄어 있다. ‘N1+값’ 구성의 경우 이를 합성어로 처리하면 N1이 받침으로 끝나지 않은 단어의 경우 사이시 웃 현상을 표기에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어를 이루고 ‘시, 수필’ 등은 ‘시집, 수필집’이라고 한다.<sup>13)</sup> 이런 특징은 ‘소설책’을 합성어로 보게 한다. 학교 교과목 뒤에 붙는 ‘책’은 어느 과목이든 결합될 수 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음악책’, ‘의힘책’ 등은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고 (8나)처럼 ‘음악책’ 등을 ‘음악 책’처럼 띄어 쓰고 보면 참 어색하다.

(9)의 예 중에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는 ‘휴가길’이다. ‘여행길’이 합성어라면 ‘휴가길’도 합성어일 것이다.<sup>14)</sup>

(10)은 한자어 일음절 명사 ‘식(式)’, ‘표(表)’가 명사 뒤에 결합된 구성으로 합성어가 아니라면 붙여 써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다. 이 중 ‘곱셈 식, 빼셈 식, 배열 표’ 등이 국어사전에 없는데 교과서에서는 모두 붙여 쓰고 있다.<sup>15)</sup> 접사가 아닌 한자어 일음절 명사를 접사처럼 앞말에 붙여 쓰려는 경향은 많은 일음절 한자어 접사가 원래는 자립적인 명사에서 기인한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sup>16)</sup>

- (11) 가. 가슴속, 마음속, 머릿속, 땅속, 물속, 숲 속, 바다 속(바닷속), 꿈속, 빛속, 굴속
- 나. 창밖, 문밖, 집 밖, 나라 밖
- 다.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

(11가) 중에 국어사전에 없는 단어는 ‘바닷속’과 ‘숲속’이다. 그런데 ‘물속’의 뜻풀이를 보면 ‘물의 가운데’로 되어 있고 ‘땅속’은 ‘땅밑’과 동의어로 처리됐다. 풀이가 좋지 않지만 앞의 뜻풀이를 따르면 ‘숲속’은 ‘숲 가운데’로 풀이될 수 있고 ‘바닷속’은 ‘바닷물 속’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합성어로 판단한 ‘물속, 땅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바닷속’은 사이시

13) ‘노래책’은 없지만 ‘노래집’이 국어사전에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요즘은 ‘노래집’보다 ‘노래책’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쓴다.

14) 합성어라면 ‘휴갓길’로 표기해야 한다.

15) 양명희(2000가), 양명희(2000나) 참조

16) 『표준국어대사전』 띄어쓰기 지침(1999)에는 일음절 한자어를 항상 붙여 쓰는 것과 표제어 등재 여부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표’는 항상 붙여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전에는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못까지 있어 합성어로 인정하지 않으면 ‘바다 속’으로 써야 한다.<sup>17)</sup> ‘가슴속’은 ‘마음속’의 동의어로 ‘마음속’은 ‘마음의 속’으로 풀이되어 있는데, ‘가슴’이 ‘마음’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를 이미 가지므로 합성어로 보지 않아도 사실은 의미 해석상 문제될 것은 없다. ‘머릿속’도 마찬가지다. ‘벗속’과 유사한 ‘안개 속’, ‘굴속’과 유사한 ‘동굴 속’의 띄어쓰기도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11나)의 ‘N1+밖’ 구성 중에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는 ‘문밖, 창밖’이다. 그 풀이도 ‘문의 바깥쪽, 창의 밖’으로 합성어라기보다 띄어쓰기가 어색하여 붙여 쓴 것으로 보인다.

(11다)의 ‘우리말, 우리글, 우리나라’는 어느 경우에나 붙여 쓰는 것은 아니고 ‘한국어, 한글, 대한민국’의 뜻을 가질 때만 붙여 쓴다.<sup>18)</sup>

### 3.2. ‘V1-어+V2’ 구성, ‘N+V’ 구성의 합성 동사

합성 동사는 합성 명사에 비하면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의미론적 기준에 의한 합성어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합성 동사 중에 V2가 보조 동사인 경우는 띄어쓰기가 더 어렵다. 보조 동사는 현재 띄어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sup>19)</sup> V2가 보조 동사면 합성어 여부에 관계없이 띄어 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다.

(12) 가. 도와주다, 들려주다

- 나. 물아내다, 일아내다, 쫓아내다, 찾아내다, 불러내다
- 다. 물어보다, 알아보다, 살펴보다

17) 현재 어문 규범은 ‘바다 속’으로 쓰도록 되어 있다.

18) 『표준국어대사전』은 이 세 단어를 ‘한국어, 한글, 대한민국’의 의미로 사전 표제어에 등재했다. 일반적으로 붙여 쓴 것을 국어사전에서 인정한 예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처럼 ‘N1+N2’ 구성의 띄어쓰기와 관련해 붙여 쓰는 것을 많이 인정하였다. 한자 사자성어를 모두 붙인 것이 대표적이다.

19) 보조 용언은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는 붙여 쓰도록 하였으나 1946년 수정안부터 띄어 쓰도록 하여 현재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 둘려놓다, 둘러놓다, 덮어두다

(12)의 예는 V2가 보조 동사이지만 국어사전에 합성어로 올라 있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대부분 띄어 있고 학자에 따라서는 위의 단어들을 모두 합성어로 보지 않는다.<sup>20)</sup> 이처럼 보조 동사 결합형의 합성 동사 판별은 쉽지 않은 일이라 민현식(1999 : 215)에서는 접속 용언, 합성 용언, 의존 용언을 모두 붙여 써서 혼란을 일거에 잠재우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sup>21)</sup>

합성 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사용되던 ‘서’의 삽입은 사실은 접속 구성과 비접속 구성을 구별하는 방법이었고, ‘V1-어’의 대동사화나 ‘V1-어’의 확대 역시 내포 구성을 구별하는 기준이지 합성 동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sup>22)</sup> 그러므로 ‘서’가 삽입되지 않는다고 합성 동사가 아니며 대동사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합성 동사라 할 수도 없다. 이처럼 합성 동사에 대한 국어학적 성과물이 부족한 가운데 국어사전 편찬자와 교과서 편찬자들은 혼란에 빠져 있는 듯하다. 다음 예도 교과서와 국어사전의 띄어쓰기가 다른 예들이다.

(13) 가. 들여오다, 훌러나오다, 살아남다

나. 보잘것없다, 앞장서다, 으뜸가다, 힘입다, 문제 삼다

(13가)는 ‘V1-어+V2’ 구성으로 V2가 보조 동사가 아닌 예이고 (13나)는 ‘N+V’ 구성으로<sup>23)</sup> 교과서와 국어사전에서 달리 처리되어 있는 예이다. 김창섭(1998)은 (13가)의 ‘들여오다’는 내포 구성으로 ‘흘러나오다’는 합성 동사

20) 김창섭(1998)은 (5가)의 보조 동사 ‘주다’ 결합형을 모두 내포 구성으로 보고, (5나)의 보조 동사 ‘내다’ 결합형 중에서는 ‘알아내다’는 내포 구성으로 나머지는 합성 동사로 보았다. (5다)에서는 ‘물어보다’는 내포 구성으로, ‘알아보다, 살펴보다’는 합성 동사로 본다. (5라)의 ‘놓다’ 결합형은 모두를 내포 구성으로 보고 ‘덮어두다’는 아예 가능 합성 동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1) 필자도 민현식(1999)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러나 이렇게 띄어쓰기의 원칙을 정한다 해도 단어마다 사정하여 합성이 어휘목록을 정하는 일은 국어학자의 일로 남게 된다.

22) 김창섭(1998 : 16~25) 참조.

23) ‘보잘것없다’는 엄격히 말하면 ‘NP+V’ 구성이다.

로 보고 있으며 ‘살아남다’는 합성 동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교과서에는 (13나)를 ‘보잘것 없다, 앞장 서다, 으뜸 가다, 힘 입다, 문제삼다’로 띄어 쓰고 있는데, 국어사전에는 모두 합성어로 처리되어 있고 ‘문제삼다’만 구로 본다. 교과서의 띄어쓰기는 1964년의 「교정편람」을 따른 것으로 거기에서는 ‘N+V’ 구성 중 다음을 붙이도록 하였다.<sup>24)</sup>

- (14) 가. NV구조 : 마음놓다, 마음먹다, 맛보다, 빨맞추다, 머리었다, 배부르다,  
인사하다, 인사드리다, 그늘지다, 가로놓이다, 게으름피우다, 값싸다,  
소리치다, 숨넘어가다, 정떨어지다, 춤추다, 한없다
- 나. -없다/있다<sup>25)</sup> : 꾸밈없다, 난데없다, 밀도끌도없다, 버릇없다, 재미있  
다, 맛있다, 멋있다
- 다. -삼다/나다<sup>26)</sup>/짓다/들이다 : 문제삼다, 결론나다, 단정짓다, 길들이다

‘N+V’ 구성의 합성어는 원래 구이던 형식이 조사가 탈락되어 쓰이면서 결합력이 강해져 단어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어화에 대한 판단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합성어 판단에도 차이가 난다. 실제로 원영섭(1993 : 249~327)을 보면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내의 띄어쓰기가 무척 혼란스러움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멋있다, 맛있다, 재미있다, 멋없다, 맛없다, 재미없다’와 같은 ‘-없다/있다’ 부류는 합성어임이 자주 의심되곤 한다.<sup>27)</sup>

24) 민현식(1999 : 216) 재인용.

25) 『표준국어대사전』의 띄어쓰기 지침(1999)에서는 명사+없다(있다)의 띄어쓰기 기준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조사의 개입이 불가능하면 합성어로 본다. 예) 가없다, 난데없다, 느닷없다, 덧없다
  - 2) ‘명사+있다’의 짹이 없으면 합성어로 본다. 예) 대중없다, 말없다, 버릇없다, 꾸밈없다
  - 3) 의미가 특수화된 경우 합성어로 본다.
  - 4) ‘관계있다/관계없다, 상관있다/상관없다, 맛있다/맛없다, 멋있다/멋없다, 재미있다/재미없다’는 한 단어로 본다.
- 26) 안상순(2000)은 『표준국어대사전』의 ‘명사+나다’ 표제어가 불균형적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예) 조각나다, 소문나다/구멍 나다, 들통 나다
- 27) 서정수(1991 : 290)는 최현배(1961 : 679)에서 합성어로 다루고 있는 ‘-없다/있다’ 합성어가 조사 개입이 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성어가 아니라 구임을 주장하고 있다.

'N+V' 형식의 합성어 기준에 따르면 이 단어들은 조사가 개입되기 때문에 합성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단어들이 합성어로 국어사전에 등재된 것은 거의 조사 개입 없이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다. 이 외에도 '상관있다/상관 없다, 관계있다/관계없다'가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데 역시 조사 개입 없이 사용되는 특성 때문이다.

#### 4. 의존 명사와 접미사

의존 명사와 접미사는 모두 의존 형식으로 그 구분이 쉽지 않다. 접미사는 단어를 파생시킨다는 특징이 있으나 명사 뒤에 의존 형식이 오는 경우 파생으로 볼지 합성으로 볼지 판단하기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의존 명사는 용어가 나타내듯 의존성과 명사성을 특징으로 한다. 의존성은 비자립성을 뜻하는 것으로 항상 다른 성분과 통합하여야만 명사로서의 통사 기능을 할 수 있고 의존 명사의 특수 의미도 실현된다. 의존 명사의 선행 요소는 주로 관형이나 지시관형사, 그리고 의존 명사와 의미적 연관을 지니는 특정 부류의 체언이 온다. 이들은 모두 관형어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 요소와 의존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점 때문에 의존 명시가 자주 접미사로 오인되기도 한다. 명사성은 격조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의존 명사는 자립 명사에 비해 후행하는 조사 선택에 제약이 많은 편이다.

- (15) 가. 상(上) : 지구 상에서/문학사상
  - 나. 대(代) : 숙종 대/이십 대, 팔십년 대
  - 다. 편(便) : 기차 편
  - 라. 격(格) : 대장 격
  - 마. 측(側) : 남한 측, 주최 측
- (16) 가. 손(孫) : 십일 대손
  - 나. 조(祖) : 오 대조, 7대조
  - 다. 조(朝) : 성종조, 조선조
  - 라. 간(間) : 십 년간, 대장간

(15)는 명사인지 또는 의존 명사인지 아니면 접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띄어쓰기에 곤혹을 느끼게 하는 예들이다. (15가)의 경우는 ‘지구 상에서’의 예처럼 ‘상’이 구체적인 의미로서 ‘위’라는 뜻일 때는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문학사상, 법률상’의 예처럼 ‘상’이 추상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접미사로 보아 붙여 쓴다. (15나)의 ‘대’는 선행 성분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 명사와 의존 명사로 각각 달리 처리되는데, ‘숙종 대’는 ‘숙종의 대에는’에서 보듯 ‘대’의 자립성이 인정되므로 명사로 ‘이십 대, 팔십 년대’의 예는 ‘대’의 자립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의존 명사로 처리된다. 이전 사전에서 ‘이십 대’의 ‘대’는 접미사로도 다루어졌다. (15다)의 ‘편’은 의존 명사로 언제나 띄어 써야 하고, (15라)의 ‘격’은 이전 사전에서 명사로 처리되기도 했으나 비자립적이므로 자격의 뜻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15마)는 이전 사전에서 선행 요소에 따라 의존 명사와 접미사로 각각 처리되기도 했으나 실제로 단어를 파생하는 접미사적인 성격은 찾기 어렵다. 이 외에도 ‘면(面), 역(役)’ 등을 접미사로 잘못 인식하여 ‘시설면에서, 심청역’과 같은 띄어쓰기가 교과서에 나타나기도 하나 합성어가 아니라면 ‘면, 역’은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가장자리의 의미를 지니는 ‘변(邊)’ 역시 국어사전에서 접미사로 처리된 일도 있으나 의존 명사로 ‘한강 변, 남대천 변’과 같이 띄어 써야 한다.

(16가)~(16라)의 ‘손, 조(祖), 조(朝), 간’은 모두 접미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이들 접미사는 앞말에 의미적 제약을 갖는데 ‘손, 조(祖)’는 ‘대’와 같은 말이 오고, ‘조(朝)’는 왕명이나 왕조를 나타내는 말, ‘간’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온다. (16)의 예들이 띄어쓰기에 혼란을 보이는 것은 같은 한자 어가 명사나 의존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6가)의 ‘손’은 ‘손이 귀한 집안’처럼 명사로 ‘후손’의 뜻으로 사용되며 (16라)의 ‘간’은 ‘서울 부산 간, 부모 자식 간’의 예처럼 의존 명사로 ‘사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16라)의 ‘간’은 앞의 접사들보다 접사적 성격이 약하다. ‘십 년 만에 만났다’의 ‘만’의 경우는 단어의 의존성이나 앞에 오는 말에 의미적 제약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과 비슷한 성격을 갖지만 의존 명사로 보아 띄어 쓴다.

## 5. 관형사와 접두사

관형사와 접두사도 의존 형식으로 주로 명사 앞에 나타난다는 공통점 때문에 혼동되기 쉽다. 그러나 접두사는 관형사와 달리 자립성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고, 그 분포에 있어서도 뒤에 놓이는 단어에 대한 제약이 관형사보다 큰 제약을 받는다. 다음 (17)은 관형사, (18)은 접두사의 예이다.

- (17) 가. 각(各) : 각 국, 각 부, 각 나라 /각살림  
 나. 동(同) : 동 회사, 동 기관 //동급  
 다. 오른 : 오른 다리 /오른손  
 라. 원 : 원 무릎 /원손  
 마. 전(前) : 전 사람 /전항, 전근대 사회, 전날 //전심(前審)  
 바. 전(全) : 전 인류, 전 세계 /전무식
- (18) 가. 귀(貴) : 귀 학교, 귀 기관 /귀부인, 귀공자 //귀사  
 나. 본(本) : 본 사건, 본 모양, 본 협회, 본 항 /본바탕, 본마음, 본뜻 //  
 본교, 본사  
 다. 대(對) : 대미 관계 개선, 대일본 무역 정책

(17)은 관형사의 예로 뒷말과 띄어 쓴다. 그런데 (1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형사와 명사가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기도 하고(각살림, 오른손, 원손, 전항, 전무식 등), 한자어 어근으로 비자립적인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단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동급, 전심 등) 무조건 뒷말과 띄어 쓰는 것은 아니다. (17다), (17라)의 ‘오른, 원’은 문법서에서 접두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분포 제약이 크지 않고 자립성이 강한 것으로 판단되어 관형사로 국어사전에 올랐다. (17마)의 ‘전(前)’은 ‘이전의, 앞의’의 뜻을 갖는 관형사로 예처럼 합성어를 이루기도 하고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단일어가 되기도 하며, ‘전(前)’은 자립 명사로도 사용된다(결혼 전, 전에 살던 동네). (17바)의 ‘전(全)’은 전체의 의미를 갖는 관형사로 접두사로 자주 오인되어 ‘전 인류, 전세계’와 같은 붙여 쓰기가 교과서에도 나타나는데 관형사로의 쓰임밖에 없다.

(18가), (18나)의 ‘귀, 본’은 뜻에 따라 관형사와 접두사로 각각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귀’는 ‘상대방이나 소속체를 높여 이를 때’는 관형사로(귀 학교), ‘존귀한, 값비싼’의 의미를 가질 때는(귀부인) 접두사로 본다. 또 ‘본’은 ‘어떤 대상이 말하는 이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의 뜻일 때는(본 사건) 관형사로, ‘바탕이 되는’의 뜻일 때는(본바탕) 접두사로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단어 구성과 그 뜻에 따라 관형사와 접두사로 각각 범주화가 되기 때문에 띄어쓰기 역시 쉽지 않다. ‘대’는 ‘~에 대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사 ‘대(對)’와 구분해서 써야 한다. 즉 ‘대가 된다’든지 ‘청군 대 백군’이라고 할 때는 명사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 6. 결론

국어사전은 엄격한 합성어 판단 기준에 따라 단어를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지는 않다. 합성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일조를 한 것이 사실이나 가능하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결합형을 표제어로 실어 뜻풀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사전을 근거로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위험하다.

문제는 국어의 띄어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도 실제는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야만 해결이 가능하다.<sup>28)</sup> 그러니까 국어의 띄어쓰기를 쉬운 띄어쓰기로 바꾸자는 것이다. 단어 여부나 접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학자들의 몫이고 띄어쓰기는 보기 좋고 쓰기 좋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N2가 같은 ‘N1+N2’ 구성은 일관적으로 모두 붙이거나 띄어 쓰게 하고, 일음절 한자어가 명사 뒤에 결합하는 경우도 접미사, 의존 명사의 구분 없이 모두 붙여 쓸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싶다. 또 ‘V1-어+V2’ 구성도 모두

28) 사실은 사전을 찾아도 해결되지 않는 띄어쓰기가 많다. 예를 들어 ‘받다’는 접미사로 사전에 올라 있는데 ‘받다’ 파생어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기 때문에 ‘받다’ 대신 ‘하다’가 교체될 수 있는 ‘사랑받다, 공급받다’는 붙여 쓰고 ‘하다’ 교체가 가능하지 않는 ‘월급 받다, 신호 받다’는 띄어 써야 하는 것을 띄어쓰기 원리로 습득해야만 한다.

붙여 쓰도록 하면 띄어쓰기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학계에서는 끊임없이 합성어 판단의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합성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해야겠지만 띄어쓰기는 누구나 하기 쉬운 방향으로 고쳐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 국어사전의 합성 명사 및 합성 동사 등재 현황과 교과서의 띄어쓰기를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합성어 판단의 비체계성, 합성어 판별의 어려움을 부분부분 살펴보았다. 아무쪼록 이런 작업이 합성어 연구나 띄어쓰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많은 비판이 진행되기 바란다.

## 참고문헌

- 고영근·남기심(1985), 『표준 국어문법론』, 텁출판사.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띄어쓰기 지침」, 유인물.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광해(1982), 「복합 명사의 신생과 어휘화 과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88.
- 김광해·김동식(1993), 「국어 사전에서의 합성어 처리에 대한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출판부.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연구』, 텁출판사.
- 김창섭(1998),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단어와 구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민현식(1999), 『국어 문법 연구』, 亦樂.
- 박진호(1998), 「보조 용언」,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 서정수(1990), 「합성어에 관한 문제」, 『국어문법의 연구』 II, 한국문화사. [이병근·채완·김창섭 공편(1993)에 재수록]
- 심병호(1996), 「불완전 명사와 보조적 동사의 띄어쓰기에 대하여」, '96 한국어 언어학자 국제학술회의, 국립국어연구원.
- 안상순(2000), 「『표준국어대사전』과 어문 규범」, 『새국어생활』 10권 1호,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0가),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2, 국립국어연구원.
- 양명희(2000나),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3, 국립국어연구원.
- 이익섭(1965), 「국어 복합명사의 IC 분석」, 『국어국문학』 30.
- 이익섭(1975), 「국어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학교.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임동훈(1999),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 국립국어연구원.
- 임홍빈(1981), 「사이시옷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어학』 10, 국어학회.
- 임홍빈(1989), 「統辭의 派生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현배(1961), 『우리 말본』(세번째 고침), 정음사.